

2016년 5월 16일 새벽 정리 말씀(편집 본)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금주는 스승의 대해서 말씀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의 스승은 땅을 가르치고, 하늘의 스승은 하늘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르치며, 사랑을 가르치며, 부모 공경함을 가르치고, 하늘부모를 공경하고 땅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며, 구원을 가르쳐 주고 부활을 가르치며 부활을 시켰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선생들이 가르치지만, 하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오기 전에는 못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자신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르친다는 것.

이 보이는 세계는 본인이 독학을 하든지, 본인들이 공부를 하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왔지만,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역사도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는 만큼만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잘못 이해를 시켰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왔어도 못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강림을 맞았습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먼저 맞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냥 맞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맞고서 역사를 펴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림을 깨달음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역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를 맞고 신랑이 살림살이하며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맞았습니다. 내가 신부이니까. 그리고 나는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신랑만 됩니까? 내 하나님만 됩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맞게 해 주었습니다. 맞으니까 맞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았으니까 말씀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씀하는 것을, 강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약역사에 대해서 알려 주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곳이 맞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맞고, 하나님을 맞으니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성지 땅이 됐고, 성약역사가 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못 맞았으면 초가집에서 지금도 살았을 것입니다. 맞고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룩한 성지 땅으로 정해놓고. 옛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을 기억나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을 것을 받고 겪을 것을 겪어야 갈 곳을 갈 수 있습니다.

환난 기 때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잡아다 주고, 서로 울고 짜고, 뒤죽박죽 분별 못하게 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고 살려고 물속으로 막 기어들어 갑니다. 이게 사는 길인가 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환난 기 때는 그런 것입니다. 환난기가 끝나고 나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선생이 머리가 돼서 늘 하지만, 내가 더욱 머리가 돼서 할 테니까 서로 자기 살려고 형제를 헐뜯고, 형제를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환난 기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한 것을 갖고서 막 심판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 환난을 당해봐야 선생이 얼마나 환난 당했는가를 압니다. 형제로부터 환난을 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어봐야 ‘아, 우리 선생도 그러했구나. 참고 견디고 올라오는구나.’ 겪어봐야 됩니다. 안 겪어보고는, 그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겪어봐야 된다.”

그것을 겪어보면 확실한 신앙이 들어가고, 주님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심정도 아는데 겪어만 보면 그때는 또 헛갈립니다. ‘나, 하나님이 버렸나? 나 버렸지? 나, 버린 거야. 나는 끝났어,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제자가 아니고 선생이니까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겪으면서 오만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니까 옥동자를 또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겪지 않고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니, 모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 가르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형제들의 말도 서로 들어 주고, 서로 믿어 주고, 자꾸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절대 서로 못 믿어하고, 서로 울고 짜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되는 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케 하면 그 화평이라는 것이 가는 곳마

다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불안과, 그리고 서로 불신과, 서로 오해하면 가는 곳마다 계속 그것은 오해와 불안과 불만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만드는 데는 서로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위해 주고, 섬겨 주면서 계속 가면 그것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해 주리라. 쉽게! 쉬게도 해 주고, 쉽게도 해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결국 내게 배우고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배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꾸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이론만 배우지 말고 반드시 실천을 배우라.” 나와 같이 하면 됩니다. “나와 같이 하자. 너희들 혼자 하지 마라. 반드시 나와 같이 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 말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줘서 어렵히 알고 하시겠느냐. 그러니 반드시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라. 화평케 하라. 그래야 모든 일에 사탄도 마귀도 악한 자들도 조건을 못 붙인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바로 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왔는데도 못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은 와서 바로 가르쳐서 역사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내가 역사를 맞고, 하나님을 맞고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여러분들도 맞다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게 얼마나 소망이고 큼니까.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지자보다 메시아 만나면 더 좋지요. 그를 맞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맞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가야만 뭔가 이뤄지지, 형제들끼리는 형제 애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형제 애기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스승을 맞아야, 하늘의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인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 딱 “저거다! 저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못 가르쳐서 역사가 왔는데, 과거에 역사를 못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잘 가르치니까 그것을 듣고서 따라가서 신약역사의 주인들이 되어 역사를 펴 왔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현 시대도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이 시대를 해결하지, 어떤 선지자가 와서는.

선지자들은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라!” 하면서 칼로 고기를 베듯이, 칼로 호박을 탁탁 찌르듯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막 찢어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주인공이니까 칼 가지고 찌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와서, 그 전초한 위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애인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하나 길러놓고서도 매일 가꾸고 거름하고 막 크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압니까?

한 여자를 갖다놓고 매일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사랑의 희락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어놓고 진짜 미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도 조금 읽어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읽어 봐야 효과가 있지 조금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다보면 날이 새서, 벌써 새벽에 사람들이 나오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실천이다.”

오늘 말씀 다 배웠지요? 들었지요? 무조건 실천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시대를 맞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치 있게 살아라. 뜻 있게 살아라. 왜 가치 있게 못 사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 이제 가르쳐주었으니까, 이제 금주에는 실천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나와 같이 실천하자.”

이런 시대를 맞았으니 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

며!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저녁때까지 배우면 뭐합니까. 가서 실천해야지.

오전에 1시간 배우고, 하루 종일 실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얻었습니다.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그림의 떡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먹어야지. 빵을 만들어 먹어야지.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지. 8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냥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느냐. 떡이 안 떨어진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늘에서 떡이 안 떨어진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이 “농사지어라. 곡식이 자라나게 해서 추수하라. 그놈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천국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시아도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농사짓듯 메시아도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길었습니다.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있다면 땅에서 기를 것이 아니겠느냐? 길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람들과 통하니까. 개미와 인간이 말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개미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냐. 개미는 개미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뽑아서 사람들을 통솔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났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다. 하늘에서 온다.’ 하는데, 그것은 영들 밖에 없다. 하늘나라에는 영만 사니까 영만 오는 것이다.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를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금주에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들이 실천할 때, 오늘 가서 진도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주를 기쁘게 하든지 하여튼 일을 할 때에 나머지 말씀이 풀리지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나의 빈 평안이 이들에게 충만하고, 온 지구촌에 충만할지어다. 아멘.